

“남 일 아니야”... 날벼락 참사에 시민들 불안감 호소

서울 시청역 차량 인도 돌진사고 유동인구 많은 도심 사고에 우려 깊어지며 주위 살피고 운전 자체 “신속한 원인 파악, 대응 제시를”

13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교차로 교통사고’에 많은 시민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평소 유동 인구가 많은 도심 한복판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사고가 발생한 탓에 시민들의 일상 속 공포도 커지고 있다.

시민 최모(50)씨는 “어제 밤 사고 소식을 접하자마자 서울에서 대학에 다니고 있는 아들에게 연락하기 위해 휴대폰부터 찾았다”며 “서울에서 사고가 났다는 이야기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한다. 예상치도 못한 사고로 아들을 잃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너무 걱정됐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직장인 김소연(24)씨는 2일 평소 출퇴근 때 타고 다녔던 차를 놓고 지하철을 이용했다고 했다. 김씨는 “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기가 무서워졌다”며 “이제 장마 기간이라는데 빗길에 차량이 미끄러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분간 지하철을 이용할 예정이



2일 오전 서울시청 인근 교차로 대형 교통사고 현장에서 과학수사대가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쯤 서울시청 인근 교차로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다”고 밝혔다.

대학생 나모(21)씨는 이른 아침 자격증 준비를 위해 학원을 가는 길에 주변을 꼼꼼히 살폈다고 했다. 그는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평범한 사람들이 차

량 돌진으로 변을 당했다고 생각하니 덜컥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며 “나도 모르게 횡단보도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주행 중인 차량을 주시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전날의 끔찍했던 사고 장면이 뉴스나 SNS를 통해 널리 퍼지면서 이를 접한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김모(22)씨는 “SNS를 통해 사고 장면이 담긴 영상을 봤는데 내가 사고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생생했다”며 “최근 광주에서도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나서 그런지 남 일처럼 느껴지지 않아 더 무섭다”고 호소했다.

광주에서도 차량 돌진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잇따라 발생한 터라 시민들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달 25일 오전 3시께 광주 서구 광천사거리에서 승용차가 인도에 있던 10대 3명을 들이받아 다치게 했다. 이 승용차는 다른 승용차와 충돌한 직후 인도로 튕겨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18일 낮 12시14분께 광주 동구대인동한상가 건물 1층 카페로 승용차가 돌진해 1명이 사고 6일만에 숨지고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반복되는 참사 속에 시민들의 불안감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사고 현장이 담긴 사진이나 영상이 SNS를 통해 널리 퍼지면서 마치 사고 현장에 있었던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사례가 많고, 사고나 참사 소식을 접하고 2~3일 사이에 일상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한다.

▶ 2면에 계속

정성아 기자 sangja.jeong@jnilbo.com

전남도, 국립의대 정부 추천대학 선정작업 ‘본격화’

용역기관과 본계약...10월말 최종 선정
설립방식·사전·평가심사 등 3단계 진행

전남도가 국립의대 신설과 관련, 정부 추천대학 선정작업을 본격화한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전남 글로벌 컨설팅업체인 에이티커니코리아(A.T커니)와 국내 7대 로펌 중 한 곳인 법무법인 지평 컨소시엄과 전남 국립 의대 및 대학 병원 신설 정부 추천을 위한 용역의 본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기간은 11월 말까지로 용역비는 9억5800만원이다.

A.T커니·지평 컨소시엄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지난달 중순 진행된 긴급 입찰에서 5개 컨소시엄 중 1순위로 선정된 뒤 가격협상을 거쳐 본계약을 체결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등 ‘정부 요청’에 따라 이뤄지는 절차인 만큼 발주처인 전남도와 컨소시엄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평가 대상은 신성대학(들)이다.

A.T커니·지평 컨소시엄은 설립방식위원회(7~8월), 사전심사위원회(9월), 평가심사위원회(10월) 등 4개월간 3단계 논의와 심사를 거쳐 10월 말 정부추천 대학을 최종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 작업은 지난 4월초 ‘도민 담화문’에서 제시한 △지역내 의료체계 완결성 △도민 건강권 확보 △지역의 상생 발전 △공정성·객관성·전문성 확보 등 4대 원칙을

토대로 진행된다. 정부, 국책연구원, 학계, 보건의료 전문가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공정한 평가가 가능한 인사들이 3단계 전 과정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용역은 6년 전 한국에너지공대(켄텍·KENTECH) 부지선정방식과 흡사하다. 한국전력은 2018년 3월 대학 입지와 예산, 운영 방식 등 설립 마스터플랜을 만들 용역기관으로 ‘A.T커니·삼우건축’ 컨

소시엄을 확정했고, A.T커니 측은 이후 광주시와 전남도가 3곳씩 제한한 총 6곳을 대상으로 입지평가를 거쳐 나주혁신도시 내 부영골프장(CC) 일원을 대학부지로 최종 선정한 바 있다.

김영록 지사는 최근 민선8기 2년 기자회견에서 “의대 공모 과정에서 설립방식 위원회를 통해 여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도민이 원하는 최대공약수를 만들고 선정되지 못한 대학과 지역에도 의료 혜택과 지원책을 마련해 어느 지역도 실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지현 기자 jhyun.oh@jnilbo.com

중흥그룹

www.s-class.co.kr



더 특별하게 설계합니다
더 아름답게 짓고 있습니다
클래스, 그 이상을 넘어

Beyond the CLASS
중흥S-클래스